

국제 관광박람회서 전주 여행명소 홍보

전주시, 9~12일 방문객·여행사 관계자 대상 명소 소개·여행 상담 진행 홍보관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 이후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알리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서 전주 여행명소를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 400여 곳이 참여해 국내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안전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객과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주한옥마을, 전라감영,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의 주요 여행명소를 소개하고 전주여행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년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해 최우수 인기부스상을 수상하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전주시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주 여행명소를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장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여행객 유치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주가 코로나19 이후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공개 모집

전주푸드 2025플랜 실현 위한 기획·중장기계획 수립 등 업무 총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센터를 새롭게 이끌어갈 전문성과 경영 비전을 갖춘 유능하고 역량 있는 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농업, 농촌 활성화 기관 및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센터장은 전국 최초의 대도시 먹거리 전략인 '전주푸드 2025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기획과 중장기계획 수립, 책임경영 등 센터의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경영 평가 등을 통해 연임할 수 있

다. 응시 희망자는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월드컵경기장 남측에 위치한 학교급식센터 경영기획실(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pue@jeonjufood.org)로 제출하면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포함)를 거쳐 복수의 임용 후보자를 재단 이사장에게 추천한 뒤 이사장 승인을 거쳐 최종 센터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사교육팀(063-214-7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66가구 대상 '해충 ZERO 사업' 추진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오는 30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 66가구를 대상으로 '해충 ZERO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정기적으로 방역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단독주택 거주 아동 가정이다.

가정에는 방역 전문업체가 방문해 바퀴벌레, 개미 등 해충별 구제 약을 사용한 전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살균 소독 서비스 지원, 해충 방제를 위한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지도해 주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피부염 개선 효과 병꽃나무 켈러스 추출물 발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관련 기술 국내특허 출원 연구 결과 국제전문학술지 '플랜트' 온라인판에 실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항산화 효능이 있고 아토피, 여드름 피부염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병꽃나무 켈러스 추출물 기능성 소재를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병꽃나무의 꽃은 산후통이나 타박상, 두드러기, 가려움증, 골절 등에 좋고, 잎은 소화불량이나 간의 염증, 황달에

효과적이어서 그간 민간요법으로 활용돼왔으며, 켈러스(callus)는 식물에서 추출한 활기세포를 말한다.

연구원은 식물체에서 추출 가능한 대사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식물 조직 배양법을 통해 병꽃나무 켈러스 추출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추출물이 항산화를 비롯한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원이 확인한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로 출원됐으며,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전문학술지인 '플랜트(plants)' 온라인판에 실렸다. 오병준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다양한 농생명 유래 천연물 소재에서 고부가 가치 및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지속해서 확보해 연구원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연탄은행, 저장강박증 치매노인 집 주거환경 개선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저장강박증을 가진 치매노인의 집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었다.

시와 연탄은행은 9일 서안산동에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치매

노인 택에서 '사랑의 집 60호' 입주식을 가졌다.

사랑의 집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탄은행이 지난 2013년

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60호 대상가구는 장애와 치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중학생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룹홈에 입소하는 등 환경

정비가 절실한 가정이었다.

이에 시와 연탄은행은 주방업체인 부엌나라에서 싱크대를, '유정수도'에서 수도공사를,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에서 도배·장판을, 재능기부자 김기섭 씨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서서학동에 나타난 익명 기부천사

160만원 기부 홀로 어르신·조손 가정에 현금 전달 원해

서서학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나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주민이 서서학동 주민센터(동장 전아미)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60만 원을 기부했다.

익명의 목지가가 전달한 봉투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조손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분들께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또한 봉투에 3월부터 6월까지 월별 적립 금액이 적혀 있어 기부를 위해

매달 소중한 마음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서서학동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167가구에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아미 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해 주신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 쓸쓸한 평생을 보낼 이웃들에게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